

# 대학생 전공전환 경험의 내용과 과정 및 유형에 대한 질적 분석\*

이수진(李壽進)\*\*

임은미(任銀美)\*\*\*

##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에 포함된 경험의 내용, 과정, 유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공전환 경험이 있는 4년제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182개의 개념과 62개의 하위범주,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대학생 전공전환 과정의 중심현상은 전공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걱정, 인과적 조건은 잘못된 전공 선택, 맥락적 조건은 전공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중재적 조건은 전공전환을 위한 지원요인,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전공전환을 위한 활동, 결과는 진로준비행동 강화와 취업걱정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은 전공전환의 필요성 인식 및 구상, 대안 학과와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탐색,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담, 새로운 학과에 대한 의사결정, 계획실행의 단계로 나타났다. 전공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범주는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계속해 나감' 이었다. 대학생의 전공전환 경험 유형은 자기의지-지지형, 자기의지-인내형, 주변 권유-강압형, 주변권유-수용형의 4가지 유형이었다.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과 유형별로 진로지도와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대학생, 전공전환 경험, 전공전환 과정, 전공전환 유형

\* 이 논문은 이수진(2012)의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I. 서론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삶의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김성식, 2008; 손향숙, 김현정, 2006).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을 결정한 대학생들은 미성숙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거나 학업중단과 학교 이동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전과를 고민하게 된다(김민배, 문승태, 2004; 김성식, 2008; 유지선, 2004; 한국교육개발원, 2010; Sampson, Reardon, Peterson & Lenz, 2004; Tak & Lee, 2003).

대학생은 자신의 욕구 및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 직업에 입문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 진로발달이론가인 Ginzberg와 Ginsburg, Axelrad, Herma(1951)가 제시하는 직업발달단계 중 대학생 시기는 현실단계로서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탐색단계, 직업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외적 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구체화 단계,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전문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탐색단계에서는 2~3개의 대안을 만들어가게 되며, 구체화 단계에서 특정한 진로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다. 전문화 단계에서 특정한 진로분야에 맞는 직업이나 훈련과정을 선택하게 된다. Super(1990)의 진로발달 단계 중 대학생 시기는 탐색기 후반(14~24세)과 확립기(25~44세) 초반에 속한다. 탐색기(14~24세)에 속해있는 대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며 다양한 대안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선택을 점점 좁히면서 실행해 나간다. 이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주요한 진로발달과업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 적극적 탐색,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용기이다. 만약 20대 후반의 직업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성인기 직업생활은 불안정할 것이며 혼란스러운 직업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합리적인 진로결정이 중요하다.

한편, 대학과 전공선택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고등학생 진로지도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선택이 '남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로 성적과 직업전망에 의해 내려지는 일회적인 행위임이 자주 목격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39.5%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공을 바꾸고자 하며, 특히 1학년 학생은 절반 이상인 50.2%가 전공전환의향을 표현하는 등의 심각한 진로고민을 호소하고, 신입생의 95%가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하며, 수도권 고등학생들과 교장들 중 응답자의 90% 이상이 대학 입학 후 전공 탐색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등의 전공 선택 및 적응 관련 문제들로 이어진다(임은미 외, 2011; 정철영, 1998).

대학생의 전공 관련 고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1976년 카네기 위원회가 미국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4학년 학생들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2%가 최소한 한 번은 전공을 변경하였고, 대학에서 전공을 일찍 결정한 것이 주된 변경 이유 중 하나였다(이명애, 2007). 따라서 학생들이 준비되기도 전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 분야를 충분히 탐색할 기회도 갖기 전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Levin, 1978).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학부제, 편입·전과제도 등의 전공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첫 전공 선택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을 적합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전공 선택이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소속전공에 불만을 가진 학생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다. 전공전환을 했느냐 하는 사실 자체보다 전공전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내지는 전공전환 이후 좀 더 나은 진로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새롭게 선택한 전공에 만족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전공을 전환할 때 어떤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한다면, 그것의 합리성 정도를 검토하여 보다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위해 차단해야 할 요소와 강화시켜야 할 요소를 결정하는 등의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공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를 안다면, 전공 전환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보다 적절한 지지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전환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그런 평가를 내리는지를 안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전공전환의 요소들을 파악하여 진로교육과 상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 대학생의 전공전환 현상이 학술적인 연구로 다뤄진 예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유사주제 연구로서 경력단절 여성과 실직자 등 성인의 진로전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배윤주, 2011; 장현진, 나승일, 2008; 전은주, 유홍준, 2009; 최수정, 정철영, 2010), 성인의 진로전환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심리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박광배, 2001; 김윤희, 2004; 여태철, 황매향, 2009; 장계영, 김봉환, 2009; Heppner, 1991b).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전환을 직접 다룬 연구들로는 대학생을 위한 전공전환 준비도 검사의 타당성을 탐색한 연구(임은미 외, 2011a),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전환 준비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임은미 외, 2011b),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 선택 및 결정과정을 분석한 연구(이세정, 2000), 대학편입준비생의 진로수정요인과 편입결과기대를 분석한 연구(이혜영, 200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양적 분석들이고, 전공전환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질적으로 펼쳐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서 밝혀진 전공전환의 요인들이 설

문 항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질적 연구로는 박기석(200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 선택 및 결정과정을 분석한 것이 있으나 전공전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첫 전공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대학생 전공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대학생의 전공 전환을 직접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성인의 진로전환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Schlossberg(1984)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진로전환의 유형을 예측된 전환, 예측하지 못한 전환, 만성적인 전환, 일어나지 않은 전환의 네 가지로 규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Hopson과 Adams(1977)는 전환과 위기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개념화하기 위해 전환을 자발적 전환과 비자발적 전환으로 구분하였고, Louis(1980)는 노동 역할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규범적 전환을 노동시장에 진입 혹은 재진입, 동일 부서내의 역할 이동, 타부서로 전출, 직업변화, 노동시장 이탈 등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Mirvis와 Hall(1994), Sullivan(1999)은 작은 업무 변동, 임시 업무, 회사 내 타부서로 전환, 과거보다 잦은 전환경험을 진로전환의 예로 들면서, Louis가 설명한 형태보다 더 많은 형태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Heppner(1991)는 진로전환 단계에 있거나 진로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심리적으로 중요한 준비도(readiness), 자신감(confidence), 통제(control), 지각된 지지(perceived support), 독립적 결정(decision independence) 등의 진로전환준비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적성과 맞지 않아 진로를 변경하는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지침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전공전환 경험의 내용, 과정, 그리고 유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밝혀주는데 유용하며, 참여자들의 생활경험으로부터 이론을 도출할 수 있어서 실제 임상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조용환, 1999; Buckley, 2010).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 중 발생하는 전환의 원인 및 전공전환 과정 중 직면하는 경험의 내용들을 파악하여 전공을 전환하고자 하거나 전공 전환 중에 있거나 또는 이미 전공 전환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대학생의 전공전환에는 어떤 경험들이 포함되는가?
- 둘째, 대학생의 전공전환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가?
- 셋째, 대학생의 전공전환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공전환 경험이 있는 대학생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발하였다. 선발 방법은 눈덩이 표집을 통한 동료지명 방법이였다(Patton, 1990). 눈덩이 표집은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소수의 사례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점차로 표본의 수를 늘려가는 표집방법이다. 연구자는 연구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호남지역 4년제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전공전환 경험이 있으면서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의 참가 신청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로 인터뷰에 신청한 첫 학생들은 3명이었으며, 이들이 전공전환 경험이 있는 동료들을 지명하고 소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호남지역 4년제 국립대 3개교, 사립대 2개교에 재학 중이었다<표 1>.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참여자	성별	전과시기	학년	전환 전 · 후 전공	참여자	성별	전과시기	학년	전환 전 · 후 전공
1	여	2-1	4	철학과→사회복지	9	남	2-2	4	컴퓨터공학→과학교육
2	남	3-1	4	중문과→사진학과	10	여	2-2	3	한약자원→사회복지
3	남	3-2	4	컴퓨터과학→컴퓨터교육	11	남	3-2	4	물리반도체전공→정보통신공학
4	남	2-1	3	경영학→사회복지	12	남	2-1	4	컴퓨터과학→국어교육
5	남	3-1	3	건축공학→조경학과	13	남	2-2	4	조경학과→자원식물개발
6	여	2-1	4	동양어문→컴퓨터교육	14	남	2-1	3	문예창작→행정학과
7	남	2-2	4	환경공학→사회복지	15	여	2-1	3	한약자원→사회교육
8	남	2-1	4	조경학과→환경교육	16	남	2-1	3	화학→철학과

### 2. 연구절차

#### 1) 면접질문지 구성

전공전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공전환 과정을 회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대화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접질문지에 대하여 질적 연구로 학위를 취득한 박사 1인과 상담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보

완·수정하였다. 질문 항목은 초점질문 4개와 부가질문 16개로 구성하였다. 초점질문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되, 초점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내용이 빈약할 경우 부가질문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풍부한 응답을 유도하였다.

### <표 2> 면접질문지

초점질문	부가질문
1) 당신의 전공전환 과정은 어떻게 전개 되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전환을 위해 처음 시도한 일은 무엇인가요?</li> <li>· 전공을 전환한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li> <li>· 전공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이나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고,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li> <li>· 전공전환을 어떻게 정의 하겠습니까?</li> </ul>
2) 전공전환이 발생하도록 영향을 미친 요인이나 전공전환의 원인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을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무엇입니까?</li> <li>· 전공전환에 당신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li> </ul>
3) 전공전환과정 중에 당신이 사용한 전략들은 무엇이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전환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 당신이 선택한 전략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효과는 어떠한 였습니까?</li> <li>· 그 방법이 당신의 전공전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li> <li>· 당신의 전공전환 과정에는 어떠한 특징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li> <li>· 전공을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경험은 무엇입니까?</li> <li>· 대학생들이 전공전환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li> </ul>
4) 전공전환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신은 전공전환을 통해 어떠한 보람을 느꼈습니까?</li> <li>· 전공전환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 또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의식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li> <li>· 전공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li> </ul>
5)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전환 이후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일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li> <li>· 전공전환이 지닌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li> </ul>

## 2) 면접 실시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였다. 2011년 1월에서 2011년 6월까지 1차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2차와 3차 면접은 1차 면접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확인된 범주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면접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비밀보장과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총 16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2차 면접에는 5명, 3차 면접에는 7명, 4차 면접에는 4명이 참여하였다. 4차 면접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힌 연구 참여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4차 면접 자료는 수집된 자료의 포화정도를 평가하고, 그 동안 이루어진 자료의 분석이 타당한 지를 검토하는데 주로 활용하였다. 면접 참여자들에게 면접 전에 질문지를 미리 발송하였고, 14명의 참여자는 면접 전 후에 질문지에 서면으로 응답한 자료를 보내왔다.

###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면접 자료를 전사한 내용과 참여자들이 면접 전 후에 보내 준 서면자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근거이론의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 작업을 시작하였고, Strauss와 Corbin(1998)의 분석방법에 따라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개방코딩을 실시한 후 축코딩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대학생 전공전환의 과정분석을 시도 하였다. 선택코딩에서는 대학생 전공전환의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이야기 윤곽을 적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의 질적 연구 관련 학습과 경험을 정리하면, 주저자의 경우 본인이 전공을 전환한 경험이 있고,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경력이 14년 5개월이며,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를 84시간 수강하였고, 국내외 질적 분석 관련 논문을 비교 연구하면서 질적 분석을 위한 준비도를 높였다. 교신저자는 대학학생생활연구소와 청소년 상담기관의 경력이 11년이며, 질적 연구 방법론 세미나와 워크숍 및 연구모임에 3년간 참석하였고, 대학생의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1편과 인터넷 중독 조절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1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으며, 근거이론 방법론을 소개하는 단행본의 공동저자로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이와같은 이론적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의 전공전환 현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면접 자료에 대해 참여자들의 경험과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론적 민감성을 키우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첫 번째 면접에 참가한 16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전사본 16개를 읽은 후 사례별 줄 단위 분석을 통해 개방 코딩을 실시하여 개념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면접 이후에는 첫 번째 분석 내용에 더하여 새롭게 나타난 내용들을 추가하고 정리하였다. 개념 도출 작업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번의 수정 및 확인 작업을 거쳤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면접에 대한 코딩 작업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분석 내용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개념을 추가하고 수정하였으며, 전사본 55개에 대하여 전체내용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보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이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전공교수이며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2명에게 자문을 받아 개념 도출, 범주와 하위범주의 생성결과를 수정·보완하였다.

#### 4) 자료 분석의 타당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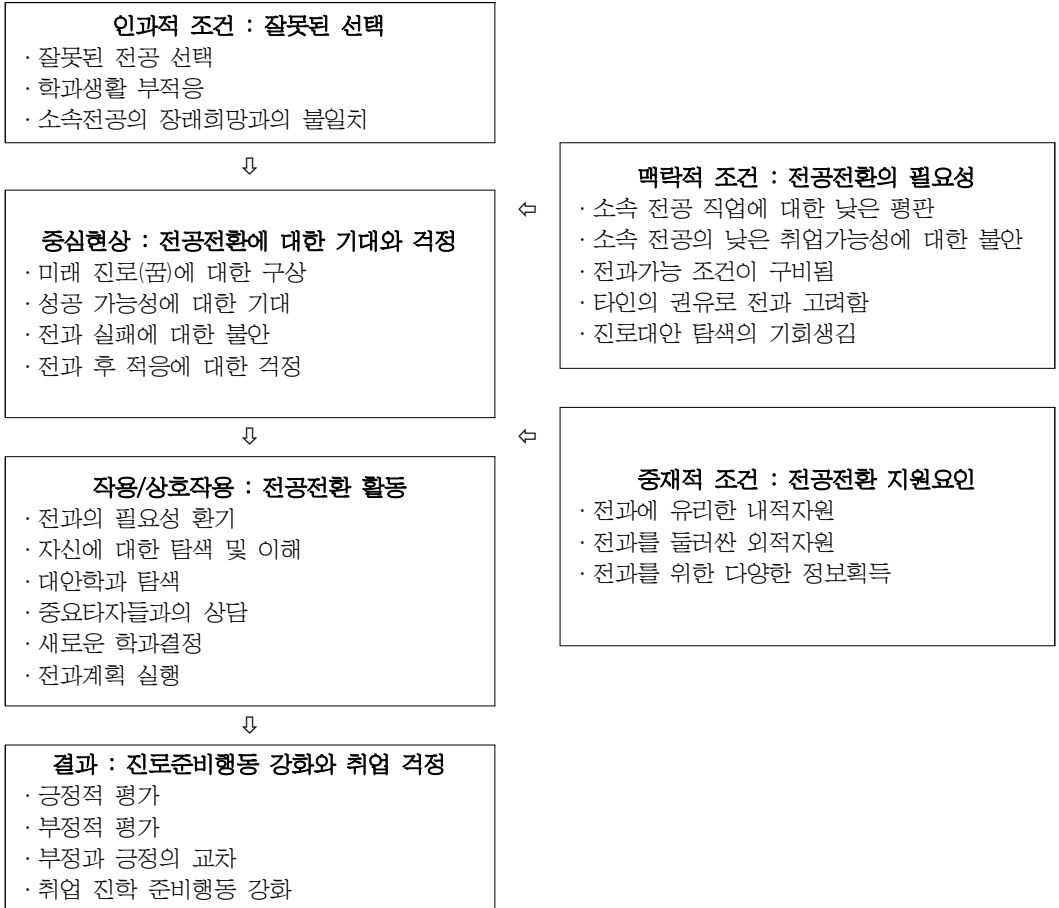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는 과정에서(Guba & Lincoln, 1981),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연구결과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을 제대로 서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전환 경험자 3인에게 자료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자료분석 결과가 자신의 전공전환 경험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평가받았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과 관련하여 동료연구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 근거이론을 활용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교수 1인의 수퍼비전을 받았다. 또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박사 논문을 작성한 교육학 박사 1인, 교육 상담 박사과정 수료생 2인과 논의 과정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심, 언어 논리에 따른 코드체계 구성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관심, 언어, 논리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일상 언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중립성의 확보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과 자료수집, 분석, 연구목적, 연구의 의도,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자문단과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자료 조작, 실제 상황 왜곡, 연구자 편견의 개입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대학생의 전공전환 경험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대학생의 전공전환 경험 내용

대학생의 전공전환 경험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과 18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를 다시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유목화 한 결과 62개의 하위범주가 생성되었다. 하위범주에 대한 유목화 작업을 통해 2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25개의 범주들을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재정리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을〔그림1〕에 제시하였고, 그 아래에 각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범주별로 하위범주와 개념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림 1]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 1) 인과적 조건 : 잘못된 선택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과정에서 인과적 조건은 '잘못된 선택'으로 요약되며, 이는 잘못된 전공선택, 학과생활 부적응, 소속 전공의 장래희망과의 불일치의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잘못된 전공 선택

잘못된 전공선택은 타의에 의한 전공선택 (부모님·선생님이 권유함,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전공을 선택함), 성적에 치중한 전공 선택(높은 성적에 맞춰 맞지 않은 학과에 지원함, 수능 점수가 낮아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입학함, 다른 학교 불합격하고 나서 입학함, 전과를 전제로 입학함), 부족한 정보에 의한 학과선택(학부제의 개념을 모르고 입학하여 원치 않는 학과에 배치됨, 사전 지식이 없었고 갈 만한 학과가 없었음,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과를 선택함), 경제

적 원인에 의한 선택(가고 싶은 학교의 등록금이 비쌌, 원하지 않는 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함)의 4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학과생활 부적응

학과생활 부적응은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공부가 힘이 듭(학과 공부에 관심이 없었음, 적성에 맞지 않음,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학과 공부가 힘들었음, 계열이 다른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큼, 5년제의 건축공학과 공부가 힘들었음), 자존심이 상함(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자존심이 상함, 학과 행사 의무 참여 강요로 자존심이 상함), 학과에 불만이 생김(원하지 않은 학과에서의 생활이 불만이었음, 학과분위기가 나랑 너무 안 맞았음), 교우관계의 어려움(학과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듯한 느낌이 듭, 학생들 수준이 낮아 나와 맞지 않음, 이기적인 친구들로 인한 실망감이 컸음, 친구가 한 명도 없었음)의 5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소속전공과 장래희망 불일치

소속전공과 장래희망 불일치는 소속전공과 다른 관심사가 있었음(관심분야가 따로 있었음, 준비가 안됐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했었음), 장래희망이 구체화됨(소속전공과는 다른 직업인 선생님, 상담사. 사회복지사, 광고포토그래퍼, 컴퓨터 프로그래머, 목회자 등이 되고 싶어 짐)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2) 맥락적 조건 : 전공전환의 필요성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과정에서 맥락적 조건은 '전공전환의 필요성'으로 요약되며, 이는 소속 전공의 직업에 대한 낮은 평판, 전과가능 조건이 구비됨, 타인의 권유로 전과 고려함, 진로 대안 탐색의 기회생김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소속 전공 직업에 대한 낮은 평판

소속 전공 직업에 대한 낮은 평판은 스스로의 낮은 평판(내 스스로 주변의식을 많이 함, 전과 전 전공으로 미래를 살기 싫었음, 취직한 친구들로부터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많이 들음, 전과를 사회적 지위 상승 수단으로 생각함,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편견, 전과 전 학과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벌기가 힘들), 주변의 낮은 평판(주변에서 예술인을 좋지 않게 생각함, 학과에 대한 주변 평판을 생각함, 중소기업조차도 4년제 대졸자를 원함)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소속 전공의 낮은 취업가능성에 대한 불안

소속전공의 낮은 취업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소속전공의 취업 전망 불투명(취업과 비전 때문에 전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하는 졸업생들이 많음), 취업에 대한 불안(취업에 대한 걱정이 큼, 자격증이 나오지 않음, 취업에 도움 되지 않는 교육과정으로 인해 불안이 생김)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전과 가능 조건이 구비됨

전과 가능 조건이 구비됨은 기회가 발생함(전과 가능한 성적이 나와 전과를 생각함, 우수한 성적으로 준비하던 학과 보다 더 나은 상위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함, 군 입대 시절 해외파병으로 돈을 벌어 전과 기회가 생김, 자격증 취득으로 인하여 전과에 관심을 갖게 됨), 가족의 지원(관심분야에 대한 부모님의 조언이 있었음,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음, 전과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었음)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타인의 권유로 전과 고려함

타인의 권유로 전과 고려함은 강압에 의해 전과 생각함(부모님의 전과 강요와 권유가 있었음, 주변의 강요로 인해 전과를 고민하게 됨), 다른 사람의 권유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전과 생각함(가족이 전과 동기를 유발 시켜줌, 부모님의 전과 권유가 있었음, 친오빠가 전과 경험이 있어서 영향을 받음, 친구 누나가 전과 경험이 있어 영향을 받음, 전과한 친구의 영향을 받음)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진로대안 탐색의 기회생김

진로대안 탐색의 기회생김은 우연히 전과 제도에 대해 알게 됨(진로고민과 탐색 중 전과제도에 대해 알게 됨, 공익근무 중 우연히 전과제도에 대해 알게 됨, 봉사 장학생으로 학사지원과에서 일하다 전과에 대해 알게 됨), 휴학기간 중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됨(군에서 동료의 영향을 받음, 군에서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생김, 군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김, 휴학기간 동안 학과 바꾸는 것에 대해 알아봄, 휴학 하고 취직 준비도 해봄)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3) 중심현상 : 전공전환에 대한 기대와 걱정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과정에서 중심현상은 '전공전환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요약되며, 이는 미래 진로(꿈)에 대한 구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 전과 실패에 대한 불안, 전과 후

적응에 대한 걱정의 4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미래 진로(꿈)에 대한 구상

미래 진로(꿈)에 대한 구상은 진로에 대해 고민함(미래에 대한 걱정과 전과에 대해 고민함, 진로에 대해 고민함, 대학 졸업장을 따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함, 인생에 대해 고민함,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긴박감을 느낌), 전공전환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심함(전과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생각함, 기도를 하다보면 확신이 느껴짐,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확연하게 됨, 외부 환경과 학과 여건 때문에 결심하게 됨, 독하게 마음 먹고 옮기자고 결심하게 됨), 자신에게 중요한 선택을 생각함(남들 시선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함, 진로선택의 기로에서의 또 다른 선택이라 생각함), 열정이 생김(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열정과 보람이 생김, 전과 시 중요한 것은 열정이 있어야 함, 좋아하다보니 관심이 생김)의 4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전과는 기회라는 생각이 듦(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전과는 효율적인 기회라고 생각함, 다시 한 번 선택의 기회가 생김, 전과는 기회제공이라고 생각함), 성공에 대한 희망이 생김(꿈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낌,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음, 새로운 학과에 대한 기대감이 생김,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음)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전과 실패에 대한 불안

전과 실패에 대한 불안은 불안이 생김(늦은 전과와 불합격에 대한 불안이 있었음, 면접에 대한 불안이 있었음),망설이게 됨(원하는 학과에 막상 지원하기가 겁남, 전과를 위한 성적 기준이 높아 전과 시도하기 겁남)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전과 후 적응에 대한 걱정

전과 후 적응에 대한 걱정은 걱정스러움(전과 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됨, 학생들을 잘 따라 갈 수 있을까 걱정됨), 두렵기도 함(다른 환경에 적응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음)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4) 중재적 조건 : 전공전환 지원요인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과정에서 중재적 조건은 '전공전환 지원요인'으로 요약되며, 이는 전과에 유리한 내적자원, 전과를 둘러싼 외적자원, 전과를 위한 다양한 정보획득의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 전과에 유리한 내적 자원

전과에 유리한 내적 자원은 꿈을 위한 도전과 용기(정말 해야 되는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해야 함,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위해 도전하는 의지력 필요함, 빨리 새로운 걸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함, 인생 전환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김, 용기가 없어서 전과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 전과생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과 편견을 극복함), 추진력과 끈기가 있었음(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능력이 있었음, 전과 실패 후 재도전 하여 성공함, 정보를 잘 찾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천하였음, 내 자신에 대해 알아본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음,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에 대한 진지한 탐색 필요함), 누적된 성공경험이 중요함(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함, 과거의 다른 일에 있어서의 성공경험이 중요함)의 3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전과를 둘러싼 외적 자원

전과를 둘러싼 외적 자원은 중요타자의 견해(전과에 대한 부모, 형제, 교수, 조교, 선배, 친구 중 하나 이상의 긍정적 의견이나 부정적 의견을 들음, 반대하시던 부모님의 허락을 받음), 경제적 지원(예상과 달리 전과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음)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전과를 위한 다양한 정보 획득

전과를 위한 다양한 정보 획득은 전과관련 정보파악(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과 정보와 자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 전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 의도하지 않았던 전과관련 정보를 얻어 도움 됨), 학점관리의 중요성 인식(전과 시 중요한 학점관리 요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 성실함을 인정받기 위해 학점관리 필요함), 전과 희망학과 관련자들과의 친분(전과 희망학과 교수님, 조교, 학생들과의 친분이 도움 됨)의 3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5) 작용/상호작용 : 전공전환 활동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과정에서 취하는 작용/상호작용은 '전공전환 활동'으로 요약되며, 이는 전과의 필요성 환기, 자신에 대한 탐색 및 이해, 대안학과 탐색, 중요타자들과의 상담, 새로운 학과결정, 전과계획 실행의 6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 • 전과의 필요성 환기

전과의 필요성 환기는 전과의 중요성과 간절함(중요한 것을 위해 전과를 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김, 전과가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함, 나에게서는 전과가 필수였음)의 1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 자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해

자신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해는 나의 가치관과 흥미, 성격에 대한 이해(자신의 가치를 깨달음, 원하는 것을 할 때 재미가 있었음, 엄메이는 걸 싫어하는 성격을 파악함), 상담센터에서의 심리검사(신뢰성이 있나 살피기 위해 많은 검사를 했음, 학교 진로상담센터를 이용해 두려움 극복함, 심리검사를 통해 내 자신의 직업과 적성에 맞는 것을 찾음)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 전공전환을 위한 대안 학과 탐색

전공전환을 위한 대안 학과 탐색은 전과 희망학과에 대한 정보수집(인터넷으로 찾아봄, 학과마다 찾아감, 전환하려는 전공 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봄), 전과 전형 방법 탐색 및 확인(전과 가능 학과/시기/학점/티오에 대한 정보탐색을 함)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담

중요한 타자들과의 상담은 가족, 친구, 조교, 교수와 상의함(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심, 친구, 조교, 교수와 상의함, 친구의 조언으로 전과할 학과 방향 변경함), 상담전문가와의 상담(전문가에게 상담 받으며 면접,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 자문 구함), 전과 경험자들의 조언듣기(학교에서 알려주는 내용과 전과경험자들을 통해 들은 정보는 완전 달랐음)의 3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 새로운 학과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새로운 학과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과 학과 선택 및 의사결정(전과할 학과가 전망이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함, 흥미와 전망을 고려하여 타협점 찾음), 최종 희망 전공 선택을 위한 중간다리 학과 선택(임용을 목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학과로의 전과 후 복수전공을 계획함, 희망진로와 가까워지는 중간다리로서의 전과학과 선택)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전과계획 실행

전과계획 실행은 성적 올리기(사범대를 목표로 정하고 학점을 관리함, 전과하려는 과의 필수 교양과목을 이수함,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함), 면접준비(면접 예상 질문 만들어 면접 연습을 많이 함, 전과를 위해 면접 책을 읽고 준비 함), 전과할 학과 수업듣기(전과할 학과 수업을 전략적으로 듣기, 높은 학점을 위해 절대평가 하는 강의를 수강함), 조교와 친분 쌓기(조교와 친해짐, 의도적으로 전과대상 학과 조교와 친하게 지냄), 전과에 필요한 자격 준비(전과에 필요한 자격증 준비와 탐색활동을 함, 전과를 위해 학원 다니며 자격 갖추기), 동아리 활동하기(동아리에서 전과관련 정보 얻기, 동아리에서 전과 경험자와 전과할 학과 친구 사귀기)의 6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6) 결과 : 진로준비행동 강화와 취업걱정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과정에서 결과는 '전공전환의 필요성'으로 요약되며, 이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부정과 긍정의 교차, 취업 진학 준비행동 강화의 4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 긍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는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합격과 성공의 기쁨을 누림, 전과 후 자신감이 상승함, 전과 후 만족감이 생김, 전과 후 성취감을 느낌, 학과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함, 나의 긍정적인 특성을 새롭게 발견함, 적성에 대해 재확인 함), 주변인의 긍정적인 평가(엄마가 인간되었다고 좋아하심,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지고 좋아하심, 전과한다고 싫어하던 친구들도 전과정보들을 물어보며 부러워함, 사범대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의 태도가 좋아짐)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부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는 후회와 아쉬움이 생김(전과 후 만족스럽지 않음,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전과한 것에 대해 후회함, 진로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에 대한 아쉬움, 전과에 대한 아쉬움이 많음, 주변에 떠밀려 한 전과로 인해 답답하고 힘듦, 진로와 인간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답답함), 학과생활부적응(새로운 과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가 어려움, 사람들은 좋았으나 열등감 때

문에 처음에 적응 못함)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전과에 대한 양면적 평가

전과에 대한 양면적 평가는 시간에 따른 평가의 변화(만족에서 후회로 변함, 후회에서 만족으로 변함), 전과에 대한 평가의 양면성(새로 옮긴 학과가 마음에 안 들지만 전과 자체는 추천함, 전과를 괜히 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정적이진 않음)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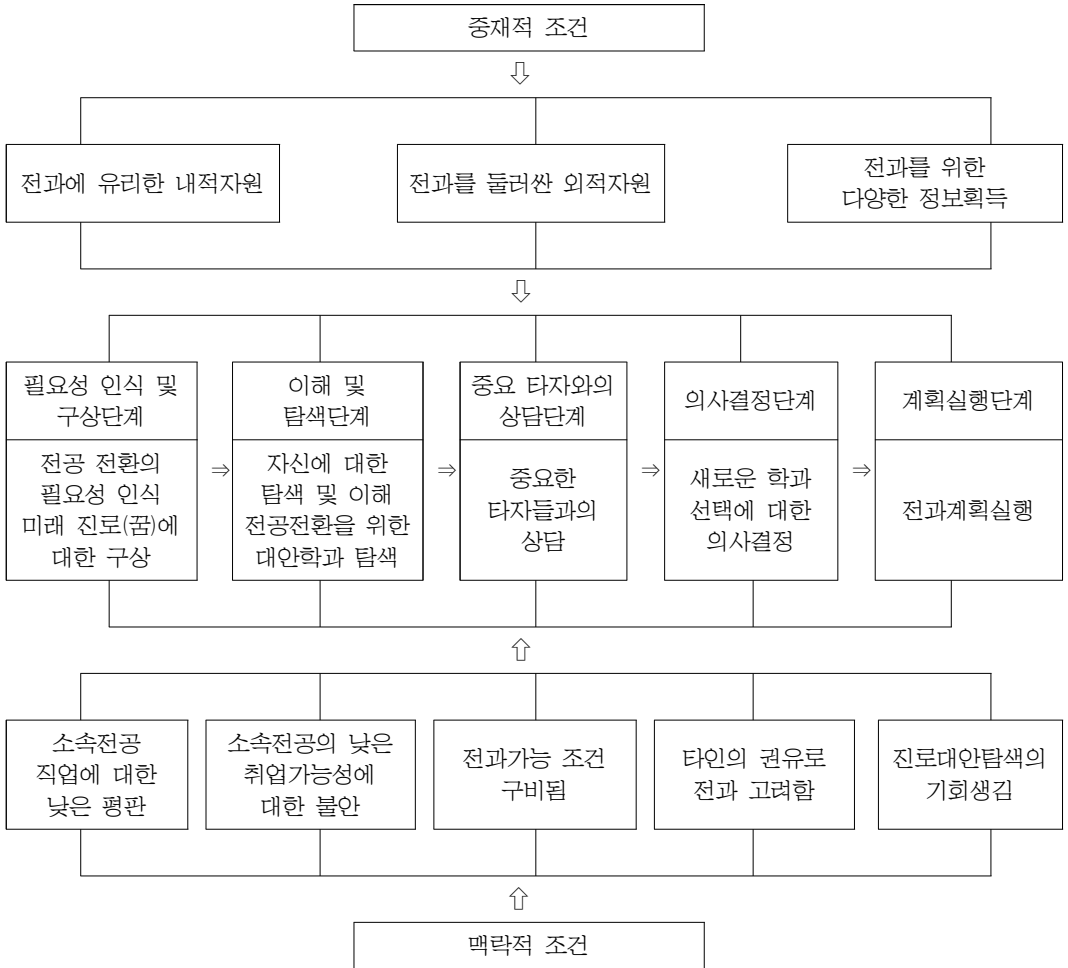
- 취업·진학 준비행동 강화

취업·진학 준비행동 강화는 노력중임(대학원 진학을 위해 노력 중, 전과해서 한 학기 다니고 일본으로 1년 유학 다녀와 JPT 일본어 국제자격증 1급 취득함), 취업준비 중(취업준비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다양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일찍 준비하기 시작함, '이제부터 시작이다'생각하고 취업 준비함, 프로그램 개발해서 CEO가 되고 싶어 준비하고 있음,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함)의 2개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 2.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경험 과정을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서 추출하여 각 패러다임에 등장하는 범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열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전환 경험과정은 '필요성 인식 및 구상', '이해 및 탐색', '중요 타자와의 상담', '의사결정', '계획실행'의 5단계 과정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계속해 나감→

[그림 2] 대학생의 전공전환 경험 과정분석

### 1) 전공전환의 필요성 인식 및 구상단계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 첫 단계는 전공전환의 필요성 인식 및 구상단계이다. 여기에서 대학생들은 소속 전공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전공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소속 전공에 대한 낮은 평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학과선택, 부모나 교사의 강권에 의한 입학,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입학한 경우들이 그 예이다(A). 수업에 따라가기 어렵거나(B), 교수와의 관계, 동료, 학과 행사, 전반적인 학과분위기 등에 불만이 쌓이면 대학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C). 그러다 자신의 장래 희망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한다(D).

- A : 저는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일단 대학에 대한 정보도 안 알아보고 입학한 잘못도 있지만... 학과가 너무 제가 생각한 거랑 달랐어요.(참여자11)
- B :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막막하고... 문과 계열이었던 제가 이과 계열의 공부를 해야 한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는 상태에다가... (참여자15)
- C : 저는 원하지 않은 학과 생활이 너무 짜증나고 학과에서 진행되는 일들이나 생활자체 이런 것도 저랑 안 맞았어요, 공부도 어렵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었어요.(참여자7)
- D :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쪽에 시간 투자를 좀 하고 책도 사보고 하다 보니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이 많이 갔어요.(참여자11)

## 2) 이해 및 탐색 단계

이해 및 탐색 단계는 전공전환을 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가치관, 성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한 후(A), 자신의 적성·흥미와 일치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걱정이 덜 되는 전공전환을 위해 다양한 대안학과를 탐색 하는 과정이다(B). 대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전과 가능한 학과, 시기, 이수학점과 성적, 여석 등 전과 전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진정 자신이 전과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색한다(C).

- A :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 하는 것, 능력이 있는 것, 과연 내가 이 전공으로 직업을 갖게 된다면 내 성격으로 견딜 수 있을까? 하는...(참여자 1)
- B : 다양한 경험과 학과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에 많이 참여했어요...(참여자15).
- C : 전과 전형 시기, 전형 방법, 전과 가능학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학과 사무실, 친구, 조교선생님 등을 통해 알아보고, 찾아봤던 것이 전략입니다. 일단 전과 관련 정보들을 파악해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참여자4)

## 3) 중요 타자와의 상담 단계

중요 타자와의 상담단계는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담을 통해 전공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타당성을 확인하고 지지를 얻어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부모님, 친구들, 조교나 교수와 상의를 하다가 전과 관련 학과 방향을 수정하거나 전과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B), 상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과를 위한 면접,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들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C). 또한 전과 경험자들을 통해 학사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전과 관련 정보와는 또 다른 전과 관련 정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전공전환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 A : 전과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나서 일단은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학과 조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 보고, 나중에는 그 학과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 학과에 대해서요. 그런데 학과 조교 선생님이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하면서...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어요. (참여자5)
- B : 교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전과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어렵게 말씀드리니까 교수님께서 아~그러나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더 좋은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철학과 교수님 아는 분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주실 수도 있다고 하셔서... (참여자16)
- C : 전과 준비하면서 상담전문가한테 상담 받았어요. 전과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면접,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법 등 이런 것도 많이 알았어요. 제가 작성한 게 어떤지 교정 받아 보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4)

#### 4) 의사결정 단계

의사결정 단계는 새로운 학과를 선택하는 단계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 및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A), 또는 상황의 압력에 의해 새로운 학과를 결정하게 된다(B). 또한 일부 대학생들은 최종 희망 학과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로서 전과학과를 선택한다(C). 이들은 다양한 정보수집 후 우선 진입 가능한 학과를 선택하여 전과에 성공하게 되며, 이후 복수전공 및 졸업 이후 또 다른 미래 계획을 준비한다.

- A : 저는 제 앞으로 미래의 꿈을 위해서라도 전과는 꼭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아니면 길이 없다는 생각으로... (참여자9).
- B : 복수전공으로 임용을 준비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한 겁니다. 그 때 단일과목으로 많이 뽑는 과목이 역사였어요. 티오가 그 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범대가 아니고 사학과를 교직복수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여자3)
- C : 제가 목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철학과에 가서 철학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자는 목적으로 전과할 학과를 선택했어요. (참여자16)

#### 5) 계획실행 단계

계획실행 단계는 전공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전략을 세우는 단계이다. 여러 가지 전공전환 준비 행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특정 학과로 전과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하게 된다(A). 이 단계에서 전과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 꿈을 위한 도전과 용기 및 추진력, 누적된 성공경험, 전과를 지원하는 환경적 체제가 갖춰져 있을수록 유리하다(B).

전과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여유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 교수, 친구, 조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전공전환을 계획 하고 실행하는 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다(C,D).

- A : 사범대를 목표로 잡고, 1학년 2학기 때 과목도 일부러 22학점 가득 채워서 들었고요. 전과하려면 성적도 좋아야하니까 성적도 신경을 많이 썼구요.(참여자15)
- B :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제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뭐가 되었든지 하라고 지지해 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고 부모님의 그러한 지지는 어렸을 때 악기를 다루는 것부터, 운동, 그림 그리는 것 등 다양한 대회에 나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참여자15)
- C : 준비하는 건 제가 하는 거고 재미있으니까 즐기면서 하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전과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할 때 생활비는 부모님이 모두 지원해 주셨어요.....대학 들어온 이후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거든요....(참여자9)
- D : 교수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들 하시니까 행여 전과 이야기 했다가 학점 잘 못 받아 전과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거든요. 그래서 전과하기 전까지는 이전 학과 교수님들한테 말하지 않고 준비들을 많이 해요. (참여자3)

## 6) 핵심범주 :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계속해 나감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연구의 주제에 대한 대답을 핵심적인 단어로 응축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핵심범주는 근거가 되는 자료에 자주 나타나며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범주들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연결 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써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의 전공전환 경험 과정에서의 핵심범주는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계속해 나감'이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소속 전공에서 불만족감과 전공전환의 성패 예측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보다 적절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꾼다. 주도적으로 또는 타인의 권유로 전공 전환을 위한 탐색과 준비행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전공을 전환하는데 성공하여 새로 선택한 전공에 몸담고 있었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하면서 적응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 윤곽을 통해 전공전환 핵심범주의 속성은 타인의 권유 강도, 자신의 의지 강도, 전과 만족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타인의 권유 강도와 자신의 의지의 강도의 차원은 강함 대 약함으로, 전과만족도 정도의 차원은 높음 대 낮음으로 제시할 수 있다.

### 3. 대학생 전공전환 과정의 유형

Strauss와 Corbin(1998)이 밝힌 유형분석의 첫 단계는 가설적 정형화로서, 핵심범주와 각 범주 간의 가설적 관계 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인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지속해 나감'을 중심으로 타인의 권유, 자신의 의지, 전과만족도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전공전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가설적으로 정형화하고 그 관계를 진술하였다.

- 전공전환에 대한 타인의 권유가 강하고 자신의 의지가 약하며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지속해 나감'은 전공전환에 대한 동기가 약하고, 전공전환을 위한 준비행동 또한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전공전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 전공전환에 대한 타인의 권유가 강하고 자신의 의지가 강해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지속해 나감'은 전공전환에 대한 동기가 높고, 전공전환을 위한 준비행동이 적극적일 것이며, 전공전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 전공전환에 대한 타인의 권유는 약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강해 '성공적인 전공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지속해 나감'은 전공전환의 동기가 높고, 전공전환 준비행동에서는 약간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공전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적인 정형화와 진술문을 가지고 면접 자료와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타인권유 수준과 자기 의지 수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공전환 경험의 질을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으로 크게 '자기 의지형', '주변 권유형'의 2가지로 정리하였다.

#### 1) 자기 의지형

자기 의지형은 전공전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강해 전공을 전환한 유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자기의지-지지형

자기의지-지지형은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주변의 찬성과 적극적 지지로 전공을 전환한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전공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공전환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간다. 또한 전공전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전공전환을 하게 된다(A). 이들은 전공전환에 대한 열의와 확신이 큰 만큼 전공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탐색하여 필요한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 전공전환 이후 학과에서의 공부 부담이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새 학과에 대한 적응에도 적극적이었다(B,C). 막상 새 학과에 가보니 학생들의 텃세가 심해 처음에는 적응이 잘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

었지만 이후 바로 적응하는 노력을 보였다(D).

- A : 참 우리 엄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저를 데리고 외국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신 후 제가 하고 싶은 데로 2년간을 지켜보고 원하는 걸 지원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에 들어오고 싶었고요. 학과생활에 불만을 표하며 전과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렇게 하라고 지지해 주셨어요.(참여자15).
- B : 전과 후 적응이 잘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일부러 학과 간부를 하겠다고 도전해서 총무를 하게 돼서 돈을 걷을 때 애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름이라도 외우게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웠던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참여자5)
- C : 전과 후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진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학습 시간 자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하는 양도 많아졌구요.(참여자9)
- D : 처음에는 아무래도 낯선 곳이니가 텃세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극복하고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지만요.(참여자12)

## (2) 자기의지-인내형

자기의지-인내형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전공을 전환한 유형이다. 이들은 전공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전공전환을 망설인다. 그러다가 오기가 생겨 자신이 해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여 전공전환을 이뤄낸다.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로 전공전환 시도를 포기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전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부모님을 설득하여 허락을 받아 낸 후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으며 전과한 학생들도 있었다(A). 이들은 과거 다른 일들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었으나, 본인의 인내와 오기, 의지로 전공전환에 성공한 이후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노력하여 전공전환에 성공하였기에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의사결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된 것 같다고 하였다(C).

- A :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셔서 엄두도 못냈었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건 해야겠더라고요, 군대에서 해외 파병 갔다 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진과 전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막상 제가 전과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으니깐 부모님이 좀 보태주시고.....많은 도움이 됐죠.(참여자2)
- B : 제가 이전까지는 어떤 일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었고요. 전과를 하고부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착착 맞아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뭐든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참여자11)
- C : 그런 걸 한번 씩 겪어 봄으로써 다른 문제가 생겨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할 수

있는...그런 계기가 되었고...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친구들도 제가 자부심 많은 거를 알아요... 또 보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환경을 좋아하기도 하고요.(참여자7)

## 2) 주변 권유형

주변 권유형은 주변의 권유로 인해 전공을 전환한 유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은 주변권유-강압형과 주변권유-수용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 (1) 주변권유-강압형

주변권유 강압형은 전공전환에 대한 주변인들의 권유와 강압에 의해 전공을 전환한 유형이다. 본인이 속해 있었던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변인들이 부정적 편견과 취업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전공을 전환한 유형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주장하였으나 본인의 의지가 강하지 못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A). 이들의 대부분은 전공전환에 대한 정보를 주변사람들이 찾아서 알려주고, 본인은 따르기만 한 경우가 많아 전과를 하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전과 후 학과 공부와 대인관계 등에 적응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타인의 강압에 의해 전과를 해서 후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과 기회를 누리는 것에 대한 추천은 하고 싶다고 하여 타인의 강압에 의해 전과하여 후회도 하지만(B) 전과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

A : 1학년 때 일본어가 재미있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비전 없다고, 전과하라고 강요하셨어요. 워낙 제가 죽대가 없다보니 일본어가 재미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사범대로 전과를 했거든요....제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목표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임용시험! 다른 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주변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임용만 붙으면 된다.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마라. 그래서 제 미래는 딱 하나였어요. 임용시험 합격!(참여자6)

B : 내가 왜 삼촌말만 듣고 2년 넘게 했던 거를 안 하고 여기로 왔을까...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단순하게 '공무원 시험 보려면 행정학과로 가면 도움 될까?'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던 거예요.(참여자14)

C : 사실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전과를 해서 후회는 하지만 전과 자체가 싫지는 않아요? 참 아이러니 하지요? 저는 전과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친구들한테 전과를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이야기 하거든요.(참여자6)

## (2) 주변권유-수용형

주변권유-수용형은 주변 권유와 자신의 중간수준의 의지 때문에 전공을 전환한 유형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전공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우연한 기회에 의해 전공전환에 대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친구들이 전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본인들도 의지가 생겨 전공하였다(A). 이들 중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이 전공전환을 경험한 학생들이 있었으며, 전공전환 후 학과에 대한 불만과 적응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B). 그러나 대부분은 타인의 도움으로 전공전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준비하여 전공전환에 성공함으로써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C).

A : 친구랑 자취를 했는데 친구 누나랑 엄청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저는 위로 형이나 누나도 없고, 혼자 알아서 공부하는 편이어서 전공에 대해 잘 모르다가 처음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친구 누나였어요. 듣고 보니 너무 괜찮아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 부모님도 전공을 권유하셨는데 저도 마음에 들더라구요. (참여자5)

B : 좋은 사람들이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긴 하는데... 적응을 못한 이유가 열등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중간고사를 봤는데 예전 전공 시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두 세줄 쓰니까 쓸 말이 없는데 옆에서는 “종이 한 장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 제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참여자12)

C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죠. 전공을 해냈다는 점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걸 해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있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워요. (참여자7)

## III.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전공전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전공전환 경험이 있는 4년제 대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하여, 대학생 전공전환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 및 그 의미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 전공전환 경험의 내용을 실제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전공전환 과정에서 경험하는 핵심 내용은 ‘성공적인 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었다. 첫 번째 선택한 전공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중심 현상은 전공 전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의 교차였다. 이러한 중심현상에는 첫 번째 전공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인과적 조건이 자리잡고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진학한 전공에서 이들은 학업, 학과 적응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거나 전공전환



의 기회가 주어지면 전공을 바꾸고자하는 의향을 표현하는 심각한 진로고민을 호소하고(임은미 외, 2011a; 정철영, 1998; 하혜숙, 1999; Braskamp et al., 1979; Kenny & Rice, 1995), 자신에게도 전공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맥락에 처한다. 인과적 조건과 맥락이 이들의 중심현상을 활성화 시킬 때 전공 전환에 유리한 내적·외적 지원요인들이 중재적으로 작용하면, 전공전환 준비활동은 탄력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전공 전환에 필요한 구비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갖춰나간다. 그 결과 전공 전환에 성공하여 자신감이 높아지고 진로준비 행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Betz & Luzzo, 1996; Gushue et al., 2006), 본격적인 취업 걱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바라보게 된다. 이에 대하여 Heppner(1991a)는 진로전환 단계에 있거나 진로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심리적 요인인 준비도(readiness), 자신감(confidence), 통제(control), 지각된 지지(perceived support), 독립적 결정(decision independence) 등의 진로전환준비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임은미 외(2011b)는 전공전환 의향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진로정체감이 높은 학생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전공전환 준비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전공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힐 수 있었다. 대학생 전공전환의 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선행 연구에서 시도된 바 없고, 본 연구에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체계화된 새로운 내용이다. 대학생의 전공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전공전환의 필요성 인식 및 구상, 이해 및 탐색, 중요타자와의 상담, 의사결정, 계획실행의 다섯 단계였다. 전공전환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며, 각 단계의 만족은 전공전환 추진 정도와 전환 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필요성 인식 및 구상의 단계에서는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이 전공 선택을 잘 못하여 자기와 맞지 않는 전공에 입학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해 및 탐색 단계에서는 전공 전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적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한다. 이들은 자신의 성격과 적성, 흥미, 가치관 뿐 아니라 전공의 특징과 전망, 그리고 전공 전환에 합격하기 위한 조건까지에 이르는 실제적인 정보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요타자와의 상담단계에서는 자신의 전공 전환 계획을 중요 타자에게 밝히면서 타당성을 점검하고 지지를 확보해 나간다. 이때 등장하는 중요 타자들은 부모, 친구, 교수, 조교 등이었다. 중요타자 역할의 중요성은 Peng과 Fetters(1978) 등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학생 전공전환 과정의 중요타자는 교수와 조교였다. 의사결정 단계에서 대학생들은 드디어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고, 계획실행 단계에서는 새로운 전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성적 올리기, 스펙 쌓기, 면접 연습 등 계획실행의 추진력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와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지지 정도가 높아질수록 강해진다(Guay et al., 2006).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전공전환 유형을 밝힐 수 있었다. Schlossberg(1984), Hopson과 Adams(1977)등의 유사연구들도 진로전환유형에 관심이 있었으나 성인의 진로전환이었고,

대학생의 전공전환 유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볼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 밝혀진 전공전환 유형은 기존의 진로전환 분야에 새로운 경험적 자료를 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대학생의 전공전환 유형은 자신의 의지와 타인의 권유라는 두 차원이 '성공적인 전환을 꿈꾸며 탐색과 실천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토대로 하여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본인이 선택하고 주변이 지지하는 자기의지-지지형, 본인이 선택하였으나 주변의 반대가 있는 자기의지-인내형, 당초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주변의 권유를 기꺼이 수용하게 된 주변권유-수용형, 주변의 강압에 끌려서 전공전환을 한 주변권유-강압형이 그것이다. 이들 중 전공전환준비행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공전환 후 만족도도 높은 유형은 자기의지-지지형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대학생들에게 전공전환의 기회를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점은 전과에 성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전환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전공전환은 한 번 해 볼만 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 더 나아가 학교를 이동하려면 또 한번의 대학입시 과정을 밟거나 그에 준하는 편입절차를 거쳐야 하고 삶의 터전을 바꿈으로써 학업 이외의 여러 가지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소모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내에서 전공전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전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처치들이 풍부하게 개발되고 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요성 인식 및 구상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소속 전공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고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을 진로발달의 과정으로 조명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대학생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상담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해 및 탐색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특성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 전공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심리검사나 직업정보 탐색 가이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중요 타자와의 상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학과 교수보다 조교를 찾아가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거부적인 태도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과 조교들이 친절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각 전공의 교수들에 대하여도 유사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학생들이 현재 소속 전공에서 떠나려 한다는 말을 교수에게 꺼내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전공전환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상담교육이 필요하다.

의사결정의 단계에서는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전 단계가 성공적

이었다면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전공 전환 과정에서도 여전히 주변권유형 또는 자기의지-인내형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의 자율성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상담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계획실행 단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물론 계획실행 단계에서의 적극성은 이전 단계에서의 풍부한 탐색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이룬 정도에 의해 절대적으로 달라진다. 그러나 주변에서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의해 이들의 자율성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 후퇴될 수도 있다. 전공전환에 필요한 성적관리, 어학공부, 스펙쌓기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가정이 이러한 지원체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전공전환의 유형에 따라 전공전환 이후에도 차별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자기의지-인내형의 학생들은 주변의 지지가 적은 상태에서 전공전환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오는 동안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측면도 있었으나 그만큼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 이들이 자신의 선택이 타당했는지, 선택한 바를 실천하는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동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권유형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외적 동기에 의지하는 경향이 커서 필요할 때 동기유발을 시켜 줄 수 있는 환경과 접촉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의지와 주변의 지지가 모두 갖추어진 학생들은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진로선택은 새로운 시작에 따르는 도전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임은미 외, 2011b) 이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신입생 위주의 오리엔테이션과 지도교수 면담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개 2, 3학년으로 전과하게 되는 전공전환 학생들은 지도교수나 학과 교수들과의 면담기회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이들에게 상담기회를 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 전환 경험이 있는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전공전환과 관련된 경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대학생 진로선택과 관련된 양적 연구에서 보여 주지 못한 대학생들의 전공전환과 관련된 핵심 경험의 내용과 더불어 전공전환의 원인, 결과, 전공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을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처치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교 문화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발견되지 않은 중요타자와의 영향중 학과 사무실 조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과 전공전환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맥락과 중재적 조건에 따라서도 경험의 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공전환 유형을 연구과정에서 밝혀낸 것도 중요하며 각 유형별로 전공전환 준비과정이나 전공전환후의 적응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고민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

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질적 연구가 갖는 한계점이기는 하지만, 연구 참여자로 호남 지역 4년제 대학생 16명만을 포함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의 전공전환 과정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 면접 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 짧아서 전공전환이후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학교생활 적응 정도와 전공 전환에 대한 만족 정도 등 전과 관련 경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김민배, 문승태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92-105.
-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이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윤희 (2004). 직업전환검사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박기석 (2001). 대학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선택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광배 (2001). 직업전환검사 개발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배윤주 (2011).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전환 과정에서 학습경험의 의미와 영향. 석사학위논문. 송실대학교.
- 손향숙, 김현정 (2006). 2006학년도 용인대학교 재학생 대학생활 실태조사 연구. **용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4, 115-135.
- 여태철, 황매향 (2009). 준·고령자 전직준비도검사-준·고령자 전직요구진단 및 심층상담 맵 개발. In 임은미, 박가열, 여태철, 황매향(2009). 83-117.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명애 (2007). 자아개념이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탐색. **교육평가연구**, 19(1), 161-181.
- 이세정 (2000). 학부제 입학생의 전공선택 및 결정과정 분석.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이혜영 (2006). 대학편입준비생의 진로수정요인 및 편입결과기대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이수진 (2012). 대학생의 전공전환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임은미, 이수진, 송미숙 (2011a). 대학생을 위한 전공전환 준비도 검사의 타당성 탐색. **진로교육연구**, 24(1), 85-102.
- 임은미, 송미숙, 이수진 (2011b).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전공전환 준비도와와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4), 1-20.
- 장계영, 김봉환 (2009). 진로전환검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0(1), 399-415.
- 장현진, 나승일 (2008). 실직자의 전환학습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3), 173-198.

- 전은주, 유흥준 (2009). 첫 자녀 출산 후 여성의 취업여부 및 직장복귀에 관한 결정요인. *한국사회*, 10(1), 183-223.
- 정철영 (1998). 진로교육. 서울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수정, 정철영 (2010). 기혼여성의 경력패턴 유형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2), 193-223.
- 하혜숙 (1999).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Betz, N. E., & Luzzo, D. A.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4), 3-428.
- Braskamp, Larry A, Wise, Steven L.. Hengstler, Dennis D.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4), 494-498.
- Buckley, M. R. (201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n C. J. Sheperis, S. J. Young, & M. H. Daniels (Ed), *Counseling research: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pp.115-134). Seoul: Pearson.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uay, F., Ratelle, C., Senecal, C., Larose, S., & Desche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ushue, G. V., Clarke, C. P., Pantzer, K. M., & Scanlan, K. R. (2006). Self-efficacy, perceptions of barriers, vocational identity, and th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Latino high school studen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4(4), 307-317.
- Heppner, M. J. (1991a). *The Career Transitions Inventory*.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 Heppner, M. J. (1991b).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adult Career Transition Inventory* (CT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Hopson, B., & Adams, J. D. (1977).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ransitions: Defining some boundaries of transition. In J. Adams, J. Hayes, B. Hopson(Eds.), *Transition: Understanding and managing personal change* (pp.1~19). Montclair, NJ: Allenheld & Osmun.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3), 433-456.
- Levin, A (1978). *Handbook on Undergraduate Curriculum* San Francisco: Jossey-Bass.
- Louis, M. (1980). Career transition: Varieties and common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5, 329-340.
- Mirvis, P. H., & Hall, D. T. (1994). Psychological success and boundaryless caree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 365-380.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Peng, S. S., & Fetters, W. B.(1978). Variables involved in withdrawal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the high school class of 1972.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5(3), 361-372.
- Sampson, J. P, Jr., Reardon, R. C, Peterson, G. W., & Lenz, J. G. (2004). *Career counseling & services: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Belmont, CA: Brooks/Cole.
- Schlossberg, N. K. (1984).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New York: Springer.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ullivan, S. E. (1999). The changing nature of career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25, 457-484.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Tak, J. K., & Lee, K. H.(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논문접수 2012년 7월 31일 / 1차 심사 2012년 9월 12일 / 게재승인 2012년 9월 20일

\* 이수진: 전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시간강의를 하고 있다.

\* E-mail: chocobar99@naver.com

\* 임은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tgeunmi@hanmail.net

Abstract

## A Qualitative Analysis on Major-Transition Process of College\*

Lee, Su-Jin\*\*

Lim, Eun-Mi\*\*\*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at students experienced in major transition process and how the experiences were processed and what types were appeared to college students' major transition. For these purposes, 16 students who did major transition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of Strauss and Corbin(1998).

As a result, 182 concepts, 62 sub-categories, and 25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transition.

Through a paradigm model of the grounded theory, the major phenomena in the process of college student's major transition was expectation and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major transition. Causal condition was faulty choice of major, contextual condition was to see the necessity of major transition, intervening conditions were internal/external resources for major transition, action-interaction were the behaviors for major transition, and results were keep doing behaviors for getting job and anxiety for job-getting.

Students' major transition processes consisted of five steps: the first was awareness and planning stage for major transition, the second stage was understanding and exploring alternative majors, the third was consulting stage with significant others, the fourth stage was to decide new major, and the final was plan implementation stage. The core category of major transition process was to keep going on searching and executing with hope for successful major transition.

The major transition experience types of college students were classified 4 categories such as 'self volition-support,' 'self volition-patience,' 'others' recommendation-coercion,' and 'others' recommendation-acceptance'. These types were derived from 2×2 type of self volition type and others' recommendation type.

Key words: college students, major transition experience, major transition process, major transition type.

---

\* This is reconstituted article from Lee, Su-Jin(2012)'s doctoral dissertation

\*\* First author, Ph.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